

두만강 변에서

새벽녘에 인기척이 있어 사립문밖을 내다보니 입성이 남루한 것이 언뜻 보기에 도복한 사람이 여섯했습니다. 내 얼굴을 본 여인은 "여기 오면 살과준다고 해서 왔수구마." 목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문을 열어주며 "쉬!" 하고 한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곳은 군불을 뿜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법 훈기가 도는 토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와 나의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구걸을 하다가 풍문에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성이 김가라고 했으며, 청진에서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얼굴은 붓고 오이꽃이 핀 것이 속병이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그 후 철이 바뀔 때마다 그녀는 이 곳을 드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듯이 그녀도 갈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고 짚어지고 갔습니다. 그녀는 한번 올 때마다 한 두 주일은 머물다 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도 그녀는 전혀 무관심한 채 한쪽 구석에서 탄전만 피우는 등 도무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다시 서리가 내릴 때쯤이니까 한 일년은 지나서였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내게로 다가와서 "선생님 나 성경책 좀 주시오. 나도 예수 믿겠수구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그녀는 무서리에 옷이 젖으며 떠나갔습니다. 사립문을 나설 때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미소를 보았습니다. 나 역시 이슬 맺힌 눈으로 애써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청진에도 한번 오시오" 하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내 귓가에서 주의 지상명령처럼 들려왔습니다. 떠나가는 그녀의 집 속에는 30여권의 소형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형편이 좀 나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배고파하고 굶주리는 자들이 이렇듯 식량을 구하려고 얼어붙은 강을 넘어 하루에도 수 십명씩 넘어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기 두만강변은 온통 흰눈과 살을 예이는 칼날 같은 바람이 영하 25도의 추위를 실감케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식량을 등에 지고 오늘도 눈길을 헤치며 탈북자들이 숨어 있는 토굴을 찾아갑니다. 중국 공안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북조선의 특무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 은밀하게 숨겨 놓고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는 탈북 형제들을 찾아 우리는 겨우내 내린 눈으로 허리까지 빠지는 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땅을 파고 만든 토굴 속에서 10여명의 형제들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어 내며 어미를 기다리는 어린애들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롱불을 밝히고 가지고 간 쌀로 밥을 해서 먹인 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이르심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선교사 일행들은 한쪽에서 동상 걸린 손발을 치료해 주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챙겨 간 옷가지를 입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주께서 이들을 보살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간 작은 성경은 북쪽의 불씨가 되어 지금 북한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선교사들을 만난 탈북자들은 생명을 부지하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공안원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반

동, 반역자, 인민의 수치라는 죄목으로 교화소로 보내져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길보리교회"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3권 1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4월 8일
☎269-8677/021-292-1639, ☒10 Bu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십자가 십자가!

꿀물을 먹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달게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편안한 생활이 평안은 아니듯이 십자가라고 해서 고통이나 아픔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으면서도 행복하십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외롭게 사는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사랑하는 딸이 가출해 어느 도시의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전단지에 딸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머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어머니는 전단지에 딸의 사진을 그려넣으면 얼굴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 대신 자신의 사진을 그려넣은 것입니다. 결국 딸은 가출한 지 사흘만에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통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를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나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짚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2001년의 고난주간입니다. 스스로 음식, 취미생활에서 절제해보는 것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좋은 체험입니다. † † †

(나의 삶, 나의 하나님에서 계속)

육을 치릅니다. 이런 비참함을 모면하려고 남편은 중국의 농장으로, 아내는 중국 한쪽에 5,000위엔(한국 돈 약 75만원)에 팔려 가기도 합니다. 또 처녀들도 몇 푼의 돈으로 어디론가 팔려갑니다. 배고픔은 가정도 부부도 없고 오직 목숨을 부지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폐결핵, 간염, 영양실조로 인한 복수, 아무 것이나 닥치는 데로 입에 넣어서 생긴 장질환, 동상, 피부, 염증, 장티푸스 등의 질환에 걸려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의 한국의 각 교회에서 입던 옷이라도 정성껏 모아 보내주셔서 어려운 것을 면했습니다만, 지금은 중국 세관에서 헌 옷 반입을 일체 못하게 하는 바람에 부득이 중국 현지에서 새 옷을 구입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구호 품이나 민간단체에서 정식으로 들어가는 구호품들은 평양의 당간부나 고위층에서 다 착취해 버리고 밑바닥 백성들 특히 함경남북도 일대의 주민들은 구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참함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두만강 변에서 일하는 우리 선교사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 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 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4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8(종려주일)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35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임혜자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4:25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죽으시고 다시 사심"	방지일 목사
찬 송 Hymn	147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4월 예배 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time봉사	안내:김교섭
4/1	이영권	김영태	최재학, 노은숙	한 건, 김시욱	최재학, 정희자
8	임혜자	김영길	김교섭, 정희자	김성국, 안은주	박일영, 임혜자
15	정희자	김교섭	김시욱, 장선주	김교섭, 정희자	최윤호, 송정섭
22	조순정	한은영	김영길, 신경화	박일영, 임혜자	최재학, 정희자
29	최윤호	한 건	박일영, 임혜자	김영길, 신경화	박일영, 임혜자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에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새벽기도: 6:00
------------	---------------	---------------

교 회 소 식

1.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잠언: 2명, 전도서, 아가: 1명
2. 2001년 교회목표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의 신앙"-'경건의 시간' 생활화
*실천사항: <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 성경, 찬송"
3. 종려주일: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인 종려(고난)주일입니다.
4. 방지일 목사의 방문하심과 설교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5. 고난주간 매일 새벽기도회: *9일- 14일(월-토) 6:00am * 본당
6. 부활절 연합새벽예배(오클랜드지역)
*일시: 부활주일(15일) 새벽 5:30 *장소: 오클랜드한인교회
7. 고난주간 금식에 전교인의 동참바랍니다.
*고난주간동안 매일 한끼 금식에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지원서 참조)
8. 성금요일예배: 12시면 태양도 빛을 잃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일시: 13일(금) 12시 정오 *장소: 교회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9. 금주 수요일예배는 본교회 특별예배와 중복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
10. Easter Monday 뉴시대회
*16일에 갖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11. 성숙자반 성경공부: 이번주와 다음주에 휴강, 27일에 갖습니다.
12. 교우를 위한 인터넷 강좌(e-mail, 인터넷)
*일시: 4월 20일 저녁 8시-10시(2시간)
*장소: Cyber City *참가비: 1인 \$12, 부부: \$20
13. 교우소식
*김영길 집사, 지난 6일(금) 한국에 계신 모친 별세, 한국방문중입니다
14. 4월의 교회력과 모임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8일	종려(고난주간)주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9-14) 성 금요일예배
15일	부활주일	Easter Monday 뉴시대회
22일		인터넷강좌. (20일)
29일	이삭줍기봉헌	